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표지 탐색하기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앞표지에 있는 두 인물의 모습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

2) 책 뒤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힘없고 착해 빠진 엉뚱 아빠와  
조폭이 꿈인 불량 아들 영웅이의  
진짜 영웅 되기 대작전

이 내용과 책 제목을 참고할 때,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떨 것 같나요?

⇒

3) 본문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골라 책 앞표지의 그림을 바꾼다면, 본문의 몇 쪽 그림으로 하고 싶은가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

4)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책 제목을 고친다면 뭐라고 짓고 싶은가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저길 좀 봐. 산 ( )이 요맘때가 제일 좋거든. 이럴 때 한번 산에도 가 보고 그래야지."

(나) "그래, 이 산에는 온통 ( )들로 가득 차 있단다. 커다란 바위는 물론 작은 바위와 돌, 나무와 풀 한 포기, 심지어 나뭇잎에 있는 작은 무늬들과 바위에 붙은 이끼 하나하나에도 속속들이 깃들어 있지."

(다) 알미운 매미 녀석은 일부러 약 올리려는 건지 더 크게 맴맴 울어 댔다. 나는 ( )에 팔을 확 뻗었다가 그만 나무 기둥을 놓치고 말았다.

(라) 짐작했던 대로 우리는 선생님한테 또 꾸지람을 들었다.

"하여튼 ( ) 인물들이야. 특히 너 양영웅, 그러다 어디 다쳤으면 어쩔 뻔 했어!"

(마) 마침 마당을 쓸던 스님 한 분이 나를 보고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또다시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건 바로 처마 밑에서 흔들리고 있는 물고기 모양의 ( ) 소리였다. 아까 보았던 그 물고기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문맥상 윗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① 환김 : 화가 나는 기회나 계기.
- ② 풍경(風磬) : 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속에는 붕어 모양의 쇠조각을 달아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
- ③ 때깔 : 눈에 선뜻 드러나 비치는 맵시나 빛깔.
- ④ 정령(精靈) : 만물의 근원을 이룬다는 신령스러운 기운.
- ⑤ 요주의(要注意) :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다시 아빠가 앞장을 섰다. 나는 아빠 뒤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호시탐탐 틈을 노렸다.

- 아빠는 한참이 지나서야 어기적어기적 나타났다.
- 아빠는 삐죽삐죽 다른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나를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다.
- 궁리궁리하는 사이에 슬금슬금 졸음이 몰려왔다.
- 가물가물한 눈에 아빠가 부지런히 팔다리를 휘젓는 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나) 아무튼 머리에 쥐가 나도록 참 열심히 연구하는 모양이었다. 저러다 정말로 아빠 머리에 '쥐 나면' 어떡하지?

1) (가)의 밑줄 친 낱말 중에서 다음 각 뜻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쓰세요.

- ① 여러모로 궁리를 거듭함. 또는 몹시 궁리함. ( )
- ② 팔다리를 부자연스럽고 크게 움직이며 천천히 걷는 모양. ( )
- ③ 의식이 조금 희미해져서 정신이 자꾸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모양. ( )
- ④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거리는 모양 ( )
- ⑤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본다는 뜻으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또는 그런 모양. ( )

2) (나)에서 밑줄 친 표현의 뜻을 쓰세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국어 문법 실력 쑥쑥 키우기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렇게 산꼭대기에 앉아 있으니 도시 전체가 한눈에 다 내려다보였다. 오밀조밀 달라붙은 건물과 집들,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였다. 그런 곳에서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길을 걷거나 창문을 내다보거나 옥상을 오락가락했다.

(나) 창밖은 흰하게 밝아 있었다. 그리고 보니 얼핏 꿈속에서 ㉢엄마 얼굴처럼 생긴 헬리콥터를 멀리 보내기도 하고 가까이 오게도 하면서 놀았던 것 같다.

(다) "이봐, 빵! 자네 정말 ㉣영웅일세. 성치도 앓은 몸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아들내미 잘 키우고 있으니 말이야." <중략>

"제 ㉥아들놀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죠. 그 녀석 아니었으면 난 진작 다 포기하고 말았을걸요. ㉦영웅이 녀석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팍팍 솟는다니까요!"

- 1)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비유적 표현의 종류를 쓰세요.
- 2) ㉠~㉢의 비유적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	㉡	㉢
대상	자동차		헬리콥터
비유적 표현		개미	
대상과 비유적 표현 사이의 공통점	크기		

- 3) ㉣~㉦에서 '나'(영웅이)를 나타내는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독해력 쑥쑥 키우기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어쨌든 나는 커서 그 형님처럼 멋지고 근사한 '영웅'이 되고 싶다. 형님이 나타나면 부하들은 모두 입을 모아 "오셨습니까!"하고 허리 딱 꺾어 인사한다. 우아, 그 형님은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대통령도 안 부러울 거다.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꾸벅 인사하고 싶을 정도다.

(나) 선재는 내 친구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개를 내 부하로 생각하고 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데다가 착하고 말도 잘 들으니까. 내 희망 사항이긴 하지만, 아마 선재도 나를 두목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선재네 집은 우리 집에서 좀 가까운 편인데, 개네도 우리처럼 반지하 방에서 산다. 선재한테는 엄마 아빠 다 있지만 나보다 용돈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나는 개한테 종종 떡볶이나 과자 같은 걸 사 주고, 개는 내 숙제를 대신 해 주곤 한다. 또 특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한다. 선재네 컴퓨터는 옛날에 한물간 거라서 인터넷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거기서 게임하려다간 속 터져 죽는다.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답 2개)

- ① '나'(영웅)는 부하들에게 인사를 받는 조폭 형님처럼 근사한 영웅이 되고 싶다.
- ② '나'(영웅)는 선재를 부하로 생각하고 있으며, 선재도 마음속으로 '나'(영웅)를 두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③ '나'(영웅)와 선재의 집은 가까운 편이며, 똑같이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다.
- ④ 선재는 '나'(영웅)보다 용돈을 적게 받아서 '나'(영웅)가 먹을 것을 사 주고 있다.
- ⑤ 선재네 컴퓨터는 옛날 것이지만, '나'(영웅)의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인터넷이 더 잘된다.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짜장면을 먹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나는 내내 엄마 생각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 생각이 나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신나게 장난치고 놀았을 텐데, 산에 갔다 와서 그런지 영 기운이 나지 않았다.

(나) 이히히히, 괜히 막 웃음이 나왔다. 아무리 선생님이지만 내가 이렇게 여자 등에 업히다니, 자꾸 온몸이 근질근질했다. 부드럽고, 포근하고, 코를 간질이는 좋은 향기도 났다. 몸이 이대로 똥똥 떠서 풍선처럼 높이높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다) '내 꿈은 무엇일까? .....내 진짜 꿈은 무엇일까?'

4학년짜리한테도 지는 내가 조폭 두목이 될 수 있을까? 놀이공원에서 바이킹도 못 타고 유령의 집에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경찰이나 군인이 될 수 있을까? 까짓 것 열심히 운동하고 겁을 없애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한테 꼭 맞는 다른 꿈이 따로 있을 것만 같았다.

1) (가)~(나)에서 '나'(영웅)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쓰세요.

	사건	마음
(가)		
(나)		

2) (다)에 나타난 '나'(영웅)의 생각을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지금의 꿈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짐	➔	
--------------------	---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계속해서 오르고 또 올랐다. 나무들, 풀들, 크고 작은 바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르다 보니 하나도 지치지 않았다. 조금 숨이 찰 때면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내 심장이 뛰는 소린가?

(나) 나는 후다닥 뛰어서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섰다. 온 세상이 구름에 덮여 있고, 내가 서 있는 봉우리만 볼록 솟아 있었다. 아니, 저 멀리에 조금 낮은 봉우리가 또한, 저쪽에 또 하나..... 그렇게 봉우리 몇 개가 드문드문 섬처럼 떠 있고, 이 세상 전체가 구름에 폭 덮여 있었다. 나는 바로 저 구름 속을 안개인 줄 알고 지나왔던 거다.

(다) 산을 다 내려온 뒤에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구름은 완전히 걷혀 있고, 내가 올랐던 봉우리를 향해, 내가 지났던 길을 따라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다.

㉠ 그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멀리서 구름이 펄펄 날리도록 산이 나를 보면서 웃는 모습을..... 그 산을 보며 나도 따라 히히히 웃어 보았다.

1) (가)~(다)에서 ‘나’(영웅)의 위치 변화를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가)	(나)	(다)
산속(산중)		

2) (가)~(다)를 참고하여 ‘나’(영웅)가 ㉠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생각하여 쓰세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사고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물고기는 크게 원을 그리며 한 바퀴를 돌고는 위아래로 헤엄쳐 다녔다. 구름폭포에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구름파도를 만나서 넘실넘실 춤을 추기도 했다. 이따금 구름 위로 펄떡 솟아오를 때면 아까 보았던 봉우리들과 그 위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눈부신 해도 보였다.

‘이게 다 내 마음속이라고?’

‘그래, 네 마음속에 이만큼 깊은 강이 있고, 저만큼 넓은 바다가 있고, 높디높은 봉우리들도 있지.’

(나) 언젠가부터 나도 여자애들한테 아이스캐키를 덜 하게 되었고, 싸움도 덜 하게 되었고, 시시껄렁한 장난을 치는 게 조금씩 재미가 없어졌다. 또 물건을 훔치는 일 따위는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거기다 가끔은 숙제 잘해 왔다고 선생님한테 칭찬까지 받는 일도 있었다. 물론 그때마다 나도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놀랐다. 나도 이제 ㉠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나쁜 아이에서 나쁘지 않은 아이로 변해 가는 걸까?

1) (가)의 밑줄 친 부분에는 물고기가 말한 ‘나’(영웅)의 마음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참고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사물을 포함해 자신의 마음속을 나타내 보세요. (‘나의 마음속에는 ~가 있고 ~가 있는 ~가 있다.’와 같은 식으로)

⇒

2) (나)에는 ‘나’(영웅)가 나쁜 아이에서 나쁘지 않은 아이로 변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이 ㉠과 같이 변화한 경험을 써 보세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 사고력/창의력 쑥쑥 키우기

다음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영웅이지만 내 맘속의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 바로 조폭 형님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조폭 형님이 좋다. 나쁜 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서 툭툭툭 다 해 치우고, 담배도 우리 아빠보다 훨씬 멋있게 피운다. 아 참, 조폭 형님도 따지고 보면 나쁜 놈인가? 하지만 내가 볼 땐 별로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는다.

(나) 바위 정령을 만난 뒤로는 종종 내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때가 많아졌다. 나답지 않게..... 하지만 도무지 무슨 꿈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림이나 글짓기,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선생님은 가끔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려면 또 어떤 꿈을 가져야 하지?

1)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가)에 나타난 ‘나’(영웅)의 꿈에 대해 비판해 보세요.

• 조폭(組暴) : 조직을 이루어 폭력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무리. = 조직폭력배

⇒

2) ㉠을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꿈을 ‘무엇이 되느냐’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포함하여 써 보세요.

⇒



# 빵 굽는 아빠와 불량 아들 (초등 5학년)

파란자전거 | 신정민 글/ 이미진 그림



##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답안) 1) 두 손을 들고 웃고 있는 아빠와 팔짱을 끼고 미소스런 아들 의 모습이 쾌활하고 장난스러워 보인다. 2)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빠는 착할 것 같고, 조폭이 꿈이라는 아들 영웅이는 불량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장난꾸러기일 것 같다. 3) 35쪽의 그림으로 바꾸고 싶다. 아빠와 영웅이가 같이 산꼭대기에 오른 모습이 보기 좋고 마음에 든다. 4)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꿈을 가지려는 아들 영웅이의 모습을 볼 때 '빵 굽는 아빠와 장난꾸러기 아들'로 고치고 싶다.
2쪽	1) (가) ③ (나) ④ (다) ① (라) ⑤ (마) ②
3쪽	1) ① 궁리궁리 ② 어기적어기적 ③ 가물가물 ④ 삐죽삐죽 ⑤ 호시탐탐 2) 싫고 두려운 상황에서 의욕이나 생각이 없어지는
4쪽	1) 직유법 2) ㉠ 장난감 ㉡ 사람들, 크기 ㉢ 엄마 얼굴, 모양 3) ㉣, ㉤, ㉥
5쪽	1) ②, ⑤
6쪽	1) (가) 사건 : 산에 갔다가 짜장면을 먹고 집에 돌아옴 / 마음 : 기운이 나지 않았고, 엄마 생각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음 (나) 사건 : 선생님 등에 업힘 / 마음 : 웃음이 나며 온몸이 근질근질할 만큼 기분이 좋음 2) (다) : '나'(영웅)에게 꼭 맞는 다른 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7쪽	1) (나) 산꼭대기 (다) 산 아래 2) (예시답안) 산을 올라가서 꼭대기에 도착하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나'(영웅)와 산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8쪽	(예시답안) 1) 나의 마음속에는 넓고 다양한 동물이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공원이 있어 많은 재미와 웃음을 가지고 있다. 2) 같은 반 친구들에게 자주 못된 말을 해서 혼났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친해지니 조금씩 천천히 못된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9쪽	(예시답안) 1) 영웅이의 꿈은 폭력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조폭 형님이 되는 것이다. 조폭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으로 잘못된 꿈이다. 2) 노래와 춤을 잘하는 유명한 아이돌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다. 사회봉사와 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아이돌이 될 것이다.